

보내는 사람 71236111

부산시 동구 수정4동



601-034

받는사람

부산시 동구 수정2동 1-61(통일빌딩5층)  
(우 601-032)

노무현의원



노무현 의원

그동안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.

시대의 흐름이란 항상 자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  
가지는 않는 법입니다. 그것이 참으로 복인줄 알  
지 못하는 고로 아쉬워하고 낙담하거나 실망을 하  
게 되는 것입니다.

노의원의 서신을 받고 참으로 감사한 것은 자기의  
일을 알고 용기를 잃지 않은 부분이 맘에 와 닿습  
니다.

혹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3대 총선당  
시 투표 이틀전에 10,000표차이로 노의원의 당선  
을 예고한 편지를 선거 사무실까지 가서 전해준  
사람입니다. 그때 직접만나서 전해 주려했던 것이  
노의원이 출타중이라서 반드시 전해 달라고 선거 사무  
원 아가씨에게 두세번 말하고 건네 주고 왔습니다.  
이제 13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몇자 써 보니  
다.

이번 14대에는 허삼수 후보에게 3000표차이로 승  
리 할 것을 예언했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얼마가  
되든지 그것은 김영삼씨의 바람(25000표가량됨이  
라고 예언)이라는 것을 이야기 했습니다.

지난 번 노의원에게 보낸 서신이 있다면 다시 보  
시길 바랍니다. 거기에 보면 마음과 중심에서 정  
의로운 길을 간다면 당신에게 반드시 기회가 오리  
라는 의미를 내포한 글이 있을 것입니다.

그러나 돌이켜 봅시다. 운동주님의 서신에서  
“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없기를.....”

진정 노의원 자신이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었음을  
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. 저는 이렇게 라도 말할  
수 있는 정치인이 있음을 하늘에 감사하고 있습니  
다.

이무쪼록 타인들이 보기에 완벽할 수 있는 자신이  
되기 보다는 자신에게 자신감과 긍지를 가질 수  
있는 노무현씨가 되시길 바랍니다.

그래서 진정 나라가 부르고 국민이 부르는 그 때 꺼리낌  
이 없이 나서고 어느 누구에게라도 공인된 자신을 만들어  
가시는 노의원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.

4년후 투표전 또한번 글로라도 만나게 되길 바랍  
니다.

1992年 5月 16日

부산 동구 구민의 한사람이

\*“시대는 정직한 자의 것이다. 그것은 하늘이 이  
시대를 움직이고 경영하고 있기 때문이다.”

願하시어 언제나 함께 있을, 더불어 살고 있을 믿어다.

00032172